

## UNMONUMENT-SINCE 2008

### 非기념비

이재훈

사회라는 커다란 숲은 소통이라는 인간의 교류-새로운 지식, 정보, 감정의 습득-를 통해서 자라왔고, 바꿔 말하면 이 집합체는 삶이라는 인간의 영역을 소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장해 왔고, 나 외의 것과의 사이를 조화롭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더욱더 발전 되어왔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안에서 우리에게서 일정한 관념들이 존재한다. 이 관념들은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이상향 또는 어떠한 부류, 혹은 어떠한 명사적 가치를 지닌 title 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념들은 일정한 이상적인 행위, 생각들을 유발시키며 이러한 행동과 생각들은 각각의 관념들의 이상적인 목표가 된다.

그로부터 사회적 통념이라는 상식의 선에서 그 행위들은 진실이 되거나 올바른 것이 된다. 가령 사회로부터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들, 참된 것과 그른 것 혹은 가족, 선생님, 학생, 직업적 명사, 혹은 인간의 행위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title....등 개념에 대한 일정한 행위가 결정지어진다. 즉 인간 고유의 가치 그리고, 다변적인 개념 등을 인간 스스로가 규정지으며 그 외적인 것들과 구분짓는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소통의 구조인 사회가 이러한 관념의 부여와 동시에 그 행위까지 요구함으로써 그 외적인 것은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이 되고 그로인해 소통의 단절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사회를 위해 인위적으로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위장된 소통을 생산하게 된다.

Un-monument 는 이렇게 고정된 이상화된 사회적 관념을 기념비적인 형식으로 조형화시킴으로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단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이다.

‘관념에서 주어지는 이상향이 현실에서 똑같이 진실, 참이 되는 것인가?’

기념비적 형식은 예술의 본질이 표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예술의 비명시적인 속성과 같이 위의 질문을 통해 비명시적으로 소통의 단절을 가져다 주는 관념을 깨기 위한 것으로써 역설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